**2012. 12.20**

 **<SSK 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회,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모색>**

발제: 전재성,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모색

(발표문 첨부파일 참조)

\*SSK 향후 일정

* 1차 년도: 복합조직원리론의 타당성, 구체이론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인식론/존재론의 정교화 작업, 기존 이론들에 대한 굴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 2차, 3차 년도: 1차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 축적

\*SSK 진행방향

* 연구자들 간의 정기 세미나
* 외부 초청자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교류 세미나
* 다른 SSK 팀과의 네트워킹 활동
* 대학원 조교팀 세미나
* 연구성과 발표 conference 및 출판 활동

<회의 내용>

전재성: 향후 1년 차 연구회에서 무엇을 할 것 인지와 그리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SSK팀은 어떤 주제의 팀이 있는 것인가?

전재성: 다른 SSK팀은 정치학 안에서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카테고리 안에 몇 개의 팀이 있음. “중국 위완화와 기축통화”, “UN 해양법 관련과 동아시아”, “신자유주의와 정부의 신뢰 위기”, “민주주의의 질”의 팀이 있음. 주제와 딱 맞는 팀은 없음.

신욱희: 꼭 동북아 국제질서에 한정 지어야 하나?

도종윤: 다른 SSK 팀과의 네트워킹은 큰 프로젝트의 연구주제가 유사하고 내용적 연결, 인적교류가 잘 되는 팀이 중요. 신생 41개 팀 중에서 큰 아젠다에서 딱 맞는 팀은 없음. 대연구주제가 맞는 팀을 찾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팀들이 하는 것들을 알아봐야 함. 정치학 관련 4팀이 있음.

네트워킹을 안 해도 초청강연 등 공동세미나 혹은 콜로키움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일차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연결고리 중요.

2년 차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발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킹 등이 필요. 1년 차에는 연구 세미나를 많이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2년 차부터 주로 네트워킹 등 진행.

신욱희: 3개월이 지난 후, 1차 년도에 뭘 할 것인지 다시 정리할 필요. 동아시아를 경험적 사례연구에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8월 말까지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가고 2차 년도부터는 역사적 사례를 보고 마지막으로 현대, 그리고 정책으로 갈 것인지. 복합을 어떻게 define하고 유사한 논의가 다른 학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review하는 것도 중요. 순수하게 이론적 파트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까. 기본적으로 구조, 물질, 관념으로 나누거나 단위, 제도 등 네 파트로 나뉘어서 그런 것의 복합으로 가면? 이론적 논의를 먼저 하면 어떨까?

전재성: 동아시아를 너무 염두하면 힘들 듯. 쭉 이론적으로 쓰고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나을 듯.

손 열: 현실적 출판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냥 이론 리뷰 만으로는 어려움.

신욱희: 1차 년도의 논문은?

도종윤: 원래 연간 논문 2개인데, 1차 년도에는 불필요. 2차 년도에는 그러나 4편이 나와야 함. 등재지 이상. 6개월 지난 후부터 count를 해줌. 그런데 4월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 등재지만 가능. 3월에 싣는 것은 안 됨. 2차 년도까지 염두하고 각자 작업 필요.

최소 요구편수가 4편. 평가는 퍼센트인데, 1인이 1편이면 100%. 2편 쓰면 200%. 많을수록 좋은 평가. 조교 등 공동작업을 하면 가능. 세 명이 쓰면 150%. 한 사람이 하나면 100%. 하나에 세 사람 이름 들어가면 150%. 보조연구원은 거의 count가 안 됨.

신욱희: 일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가 이념, 물질, 단위, 제도로 나뉘고 그에 대해서 각자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조직원리를 덮어서 하는 것은 어떠한가?

전재성: 하지만 넓은 의미의 연구주제이므로 느슨한 의미로도 가능. 동아시아를 염두한 상태로 각 단위에 대해서 논의 해야 함.

신욱희: 보고서는 분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출판은 그 안에 경험적 부분을 각자 넣어서 협력해서 organize하는 것.

전재성: 동아시아 작업에 필요한 기존 이론 리뷰가 중요. 구성주의는 기존에 리뷰한 것이 많이 있음.

신욱희: 발제문에 나온 대로 국제정치적인 Turns 중심으로 나눌 것인지, 혹은 구도, 단위, 제도로 나눌 것인지? 시대보다는 개념적인 카테고리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조교들도 참여해서 리뷰를 한다면 이론을 검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나라연구까지 포함할 것인지? 주 펑, 카첸스타인, 배리 부잔 등 관심 있는 해외학자들도 있음.

도종윤: 국제학술회의 필요.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3-4000만. 해외출장비용 포함. 해외학술회의는 네트워킹을 통해 타학교와 함께 또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

도종윤: 첫 해는 이론적 리뷰에 몰두하면 됨. 이론에 대한 역사학, 사회학 모색 필요. 연구 주제별로 리서치는 포괄적으로 철학, 사회학 등. 비판이론 검토 등. 그러나 출판 수준은 아니고 공부하는데 주안점.

신욱희: 2차와 같이 분업되는 게 좋을 듯. 가장 먼저는 이론적 리뷰를 어떤 카테고리로 할 것인지? 단위 쪽의 관심이 있는데 정상국가화의 문제 등 Unit에 대한 복합 논의도 많음. 이론적 정리하고, 2차 년도에는 역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떤가.

손열: 단위의 복합, 제도의 복합, 관념의 복합, 개념 등. 구성원리가 걸림. 조직원리의 복합으로 감. 이행기에 걸리는 문제가 있고, 서로 다른 세팅 속에서 걸림. 전통 군사영역과 다른 영역이 있음. 조직원리의 복합을 논의하는 책 읽으면서 각자 insight이야기 하는 것은 어떠한지.

전재성: 위계 등 물질적 구조의 복합에 대해서는 개별 논의가 조금씩 있음.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많이 봄. 위계나 empire를 논의. 리뷰를 하는 정도에서 Ruggie 등 ‘Heteorarchy’가 있음. anarchy에 대한 세부 논의가 있고, 탈근대의 새로운 archy가 있다.

신욱희: 리뷰작업의 분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전재성: 단위를 이론적으로 한 논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욱희: 주권과 연결. 어떻게 단위를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구성주의 일부의 논의가 단위일 수도 있음. 물질, 관념, 단위. 제도는 인공적 만든 것. 어떤 형태의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을까?

전재성: 위계, 구성원리의 물질 파트 혹은 넓은 의미의 구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구성원리 구성하는 관념 파트. 인식론 작업, 문화, 관념 등. 제도는 나중에.

기존 IR 리뷰와 비판이론 더 읽고 싶음. 새로운 서구의 비판론 등.

도종윤: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향후 진행하시는 수업관련 계획에서 연관 주제를 한 주차 정도 포함시킨 논의 필요. 동아시아 지역 연구작업의 내용, 리뷰 혹은 reference를 할애해서 다뤄주시는 것이 필요함.

전재성: 조교들은 2월까지 Hierarchy에 관한 서치하기. 국제정치에서의 아나키 또는 Hierarchy에 나온 이야기 lake혹은 Snider 등 앞으로의 조직원리에 대한 논의 등.

도종윤: 전재성 교수님께 대한 질문은 탈실증주의적 전회,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은 실증주의와 배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탈실증주의적 전회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성주의를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인가?

전재성: 문헌은 라피트 등과 같이 이론에 대한 1980년대 후반부터의 비판이 있었고, 구성주의와 탈근대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영미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이론의 politics. 구성주의도 하나, 탈근대주의 애슐리 등. 영미 과학주의나 자연과학주의에 대한 비판 등. 실증주의의 기본 가정 등 주객 분리나 규범적인 입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완전히 기본 가정 배제 하자. 탈실증주의의 갈래는 페미니즘, 구성주의, 성찰주의 등.

도종윤: 우리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이 기존 이론을 비판하면서 충돌한다면, 우리도 실증주의 비판하는 맥락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전재성: 맨 밑의 차원에서의 조직원리와 여러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실증주의적 방법이 어려울 듯. 하지만 점점 좁혀져서 한미 동맹의 문제 등은 냉전, 탈냉전으로 쭉 이어져오지만 동맹은 하나의 전략적인 상호작용 이므로 그것만 보면은 실증주의로 가능. 범위와 시대적 다원성의 절충의 문제가 있음.

도종윤: 카첸슈타인 등 자신은 eclecticism에 대해서는 관대함. 절충주의는 이론이 아니라고 비판받을 수 있음. 복합도 중첩인데 내용의 중첩이 아니라 이론을 여러 가지로 끼우는 절충주의는 논쟁이 있을 듯.

전재성: 물질적 이슈에서의 절충의 형태와 관념적 형태의 절충 등. 절충의 기준 필요할 것 같다.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의 절충주의는 실패라고 생각함. 그것은 Ad hoc한 절충이므로. 어떤 식으로 절충할 수 있는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더 선험적인 기제를 줄 수 있도록. 실리적인과 편의적으로 하게 더 합리주의냐, 성찰주의냐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으로 들어가기 전의 기준이 없는 듯.

도종윤: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의 절충이 되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과학적 접근과 철학적 접근이 어떻게 맞물릴 수 있을까? 맞물리지 않는 것인데 붙이면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신욱희: 전 박사의 이야기는 분석대상의 복합이지 방법론 복합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 방법론 자체의 복합과는 다름. 카첸슈타인 최근 책은 방법론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있음. 기존의 핵심적 article을 어떻게 절충적으로 나누는가에 대해서 Rudra Sil and Peter Katzenstein의 “Beyond Paradigms”

전재성: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를 벗어나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인 듯함. 더욱 더 20세기를 넘어서, 인간과학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도종윤: 철학적으로 본다면? 미학적인 짜임새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인식론을 넘겨두고 존재론 자체를 아예 새로운 틀로 보면 철학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현상학 등. 현상학으로 가도 큰 관념에서 동아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실증으로 보는 것보다 균형의 미, 짜임새의 미로 보면서 동아시아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행위자의 행동. 공식 등의 미학적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 미학이 무엇인지 근본적 생각도 중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적이라면 플라톤은 관념적인데, 인간의 질서도 미학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신욱희: 이론이 아니라 방법론 리뷰도 좋을 듯. 동아시아와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연구회가 있음.

도종윤: 동아시아 사람의 Idea나 행동패턴 자체가 서구사람과의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 다른 철학적 원리가 있는 것 같음.